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4주일
제36권 21호(다해) 2016년 4월17일

[묵사]



<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

‘성소(聖召)’, ‘거룩한 부르심’, ‘하느님의 부르심’.

하느님은 특별한 사람만을 부르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초대하시고,
당신의 도구로 삼고자 하신다.
부르심에서 제외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라신다.

오늘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각기 맡은 직분을 성실히 이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조명해 보는 날이다.

인간이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따라서만 살아갈 때,
인간의 삶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흔들리고 만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넷째주) 성소후원회(첫 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 (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배튼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1. 시대의 변화와 교회의 선교 정책 (1882~1911년)

1-1. 신앙의 자유

이로써 조선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될 이루고 있거나 종교가 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조선 왕조에서는 신앙이나 사상에 관한 문제도 정치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성리학 이외의 종교를 규제했고, 신앙의 자유를 관철하려는 교회와 이를 계속 억압하려는 조정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게 되었다. 또한 당시 조선 왕조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사상이 발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천주교 신앙을 법으로 금지하고 탄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와 탄압에도 천주교는 신앙의 자유를 축차적으로 성취해 갔다.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은 대략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 첫째 단계는 순교를 통한 신앙 자유 획득 운동이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신앙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시기였다. 박해 시대의 여러 순교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신자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하였다. 이 시대의 신자들은 신앙의 자유가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법에 우선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양심법에 근거한 이들의 주장은 당시의 국법으로 말미암아 용납될 수 없었고 오히려 많은 이가 순교하게 되었다. 그들의 죽음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려는 결의의 표현이었으며, 인간의 양심을 규제하는 그릇된 법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뒷날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개항(문호개방) 이후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신앙의 자유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이다. 개항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였다. 개항 이후 조선이 외국과 맺은 여러 조약에서도 조선인의 신앙의 자유에 관한 명백한 규정은 없었다. 조선이 외국과 맺은 극히 일부의 조약에 규정된 종교에 관한 조목은 어디까지나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조선인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용인한 것은 아니다.

조선인 신자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묵시적으로 용인된 때는 1882년이였다. 이 해에 교회는 인현서당(仁峴書堂, 韓漢學校)을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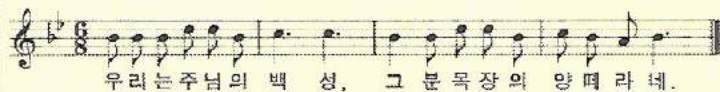
< 계속 >

토요 저녁 미사	(연) 서성용 베드로 신수산나 & 홍다두 & 홍방지거 & 장데레사
	(생)
주일 낮 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이강엽 바오로, 변세연 안드레아 & 변해경 올리안나, 서성용 베드로, 이용식 베드로 & 김준경 요한, 고준희 제임스, 현시영 요셉, 정인식 베드로, 권영식 요셉, 이로벨토, 한삼만 요셉, 노정순 베로니카, 박희성 데레사 & 김계성 아가다, 심토백, 박준구 요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생) 황윤재 베드로가정, 김정자 소피아, 차민경 루시아, 송순석 미카엘, 김수연 엘리사벳, 박계순 도미니코, 이산해 마리아 & 김내은 로사리오 & 김일선 베드로 & 유영균 우르바노, 김복순 벨라벳다, 엄세종 그레고리오, 토런스 북구역원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13,14.43-52

화답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 2독서 요한 묵시록(Revelation) 7,9.14ㄴ-1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요한(John) 10,27-30

영성제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43	243	169
봉헌	264	264	268
성체	286	286	287
파견	165	165	165

주님 목소리

주교관에서 천수를 누리다가 떠난 개가 있었습니다. 밤에 인기척에 쫓다가도 제 목소리를 금방 알아듣고 꼬리 치며 좋아했지요. 그 개가 기특하고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개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개나 고양이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도 그렇고, 사람끼리도 음색이 가지각색인데 친한 사람끼리는 금방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 10,27)

아하!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주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능력을 잘 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조차 모르기도 하고요. 그분 목소리에 친숙하지 못한 이유가 혹시 다른 소리가 너무 커서는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수많은 ‘소리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령 길이나 전철에서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꽂고 계신 분들을 흔히 봅니다. 집에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틀어놓은 TV나 라디오 소리가 잠시도 끊이질 않고요. 조용한 시간과 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충동하는 ‘소리 없는 소리’도 있습니다. 교만과 인색, 분노와 음욕, 질투와 탐욕 그리고 나태함으로 나를 유혹하는 소리가 내면을 시끄럽게 만들곤 합니다.

사실 주님 목소리도 ‘소리 없는 소리’이긴 합니다만, 우리 영혼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욕망의 소리’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정반대의 소리이지요. 그러니 그분 목소리를 들으려면 다른 두 가지의 방해되는 소리를 전부 꺼버려야만 한답니다. 사람들이 소음을 피해 피정을 떠나는 이유도 다 그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매일 피정의 집에서 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멀리 피정을 떠나지 않더라도 매일의 일상에서 그런 침묵의 때와 자리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내면의 번잡스런 소음을 끄는 방법으로 ‘기도’와 ‘영적 독서’를 꾸준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서 잠자던 주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면 적어도 다른 소리는 일부러 꺼버리고, 주님의 음성만 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젊은이들이 사제와 수도자로 부르시는 주님께 기꺼이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소주일’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그 점에서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앞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모두도 영원한 생명에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부르심에 충실하여, 그분을 잘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청합시다. 아멘.

◆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수진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손석 스테파노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희자 마리아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혜경 레나타	정인욱 아오스딩	제1독서자	박수민 히베리오	김교복 레오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한경숙 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2독서자	박수진 보나	김금자 데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제물봉헌자			토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교리반 예비자 모집

2016년 예비자 봉헌을 위해 모든 신자 분께 기도와 인도 부탁드립니다.

- 모집 및 전교 기간 : 4월3일 ~ 5월 22일
- 환영식 : 2016. 5월 29일 11시 미사 후 강당
- 교리반 : 6월2일~12월 8일, 매주 목요일 8:10 ~ 9:10PM
- 세례식 : 2016. 12.11 예정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요셉회 4월 모임

- 일시 : 오늘주일 (17일), 11시 미사후
- 장소 : 강당
- 65세 이상 퇴신 분 언제나 환영합니다.
- 연락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사회복지부 4월 상담

- 상담내용: 정부혜택 및 정보 그밖에 궁금하신 내용들
- 상담시간: 매월 첫째주 & 둘째주 미사 후 천교장
매월 셋째주 & 넷째주 전화예약자
- 상담예약: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funeral1004@yahoo.com

◆ 주일학교 여름캠프 등록안내

- 날짜: 7월 8일 금요일 ~ 7월 10일 일요일
- 장소: Oak Glen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대상: 3학년 ~ 12학년 주일학교 등록된 학생들
- 등록기간: 5월 22일 (주일)까지
- 인원: 35명 선착순
- 참가비: \$60 (등록기간 후 \$85)

◆ 성혈봉사자 모집...4월30일까지

본당 교우이시며 50세 이상 되시는 분 중 성혈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신부님의 면접과 교육 후 봉사자로 임명될 것입니다.

◆ 2016-2017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 수혜대상 :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 및 등록신자의 자녀로 교회 활동 및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기간 : 5월31일까지 마감

◆ 2016년 백삼위 성당 '영성 피정'

- 주제: 신앙 성숙과 쇄신을 위한 영성피정
- 강사: 강 요셉 신부 (구속주회)
- 대상: 전 신자
- 날짜: 6월2일(목)-5일(일)
시간표: 목, 금: 오후7시-10시30분
토: 오전10시-6시 (고해성사)
오후6시-10시30분
일: 오후1시-6시

- 참가비 : \$30
- 신청마감 : 5월22일
- 주관 : 성령기도회
- 문의 : 강 아네스 (310)780-0369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단어정시대회 우수상 총 8명 시상(오늘 주일, 학생미사)
개나리 반 : 서윤아, 무궁화 반: 김서연
해바라기 반 : 현미나, 장미 반 : 최지인
코스모스 반 : 장은서, 민들레 반 : 김윤서
수선화 반 : 이유솔, 진달래 반 : 박정은
2. 제2차 통일 골든 벨 퀴즈대회
일시 : 4월 23일 (토) 오후 2시
본당 참가자 : 이연준(9학년)
자세한 문의 사항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또는 103skccks@gmail.com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 17일 * PV3반 : 배추 된장국(\$3)
* 주일학교 : 샌드위치(11,12학년)
- 4월 24일 * 토동1반 : 카레 라이스 (\$3)
* 주일학교 : 맛볼 샌드위치(6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김병주 김옥보 김옥찬 김원모 김원호						성전헌금	강숙경 김원모 김윤진 김 준 김철민 김현숙					
	김윤진	김정희	김 준	김철민	김현숙	김화경		노혜숙	박광자	박상준	박음전	변복순	안태갑
노혜숙	류현옥	박광자	박상준	박영희	박음전		이경수	이근모	이명렬	이우성	이일길	장영우	
반정이	변복순	서영자	안태갑	윤석구	이경수		정규숙	차병용	최태훈	한길선례			
이근모	이명렬	이우성	이원형	이은경	이일길								
이재용	이종필	임연조	장영우	정규숙	조소영								
차병용	최의수	최태훈	홍인표	한길선례									
합계:\$3,175							합계 : \$1,180						
주일미사헌금 : \$2,520							감사헌금 : \$825(박수지, 박이레네)						
주일학교 : \$4,600													

남가주 소식

◆남가주 제 28차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강사 : 장요셉 신부(구속주회)
- 일시 : 2016.5.26(목) 오후 6:00~29일(주일)오후4시
- 참가비 : \$150 (숙박비 포함)
- 신청마감 : 5월 8일
- 장소:드폴센터 420 DATE STREE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 각본당 기도회장, 또는 한데레사(714) 345-4791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 수련

- 지도 : 예수회 최준열 다미아노 수사
- 일시 : 2016.6.4~2017년 3월초, 매주 토2시~5시pm
- 장소 :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
- 문의 : 정 도로테아(818)321-9505
장 켈마 (224)305-4443

◆2016 FIAT 장학금 프로그램

- 신청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12th~ 대학, 대학원생), 북미주거주 코리안 어메리칸 신학생
- GPA 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3/15(온라인접수시작~5/ 31/2016)
- 신청문의-scholarship@fiat.org (714)702-9830

◆2016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 자격: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9th~11th)
- GPA 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3/15(온라인접수시작~5/ 31/2016)
- 신청문의-service@fiat.org (714)702-9830

◆제 3회 학생 성화 미술대회

- 대상: 유치부, 초등부(저학년,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학생
- 주제: "예수님 이야기" ● 작품크기: 24x24 인치이내
- 참가비: \$10(Pay to : Mee Lee)
- 접수기간 : 4월 15일 ~5월14일
- 문의: 가톨릭 미술가회☎(909)576-5773 (562)292-8999

◆주사위 가족모집안내

- 주사위란 "주님 사랑을 위하여"의 약자로 주님의 사랑을 음악으로 전하기 위하여 모인 남가주의 천주교 생활 음악 단체에 함께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남여보컬 각2명, 연출담당: 1~2명
- 자격 : 30~40 세 가량의 가톨릭신자
- 신청: jusawi1122@gmail.com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김양금 안나 4/13(수) 오후4시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4/09(토) 엘립온천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4/15(금)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김교복 레오 850-6253 4/17(일) 오후5시
	2	윤경옥 설비아 909-557-7490	최상만 사비오 4/02(토)오후5시30분
	3	박병순 안나 968-7600	김태은 비비안나 4/22(금)오전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625-3312 4/15(금)오후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여순 도미니카 4/12(화)오전11시
	3	김유미 사비나 850-2822	강 켈마214-2290 4/09 (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박정희 마리아 4/11(월) 오후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4/09(토) 오후7시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전 테레사 909-709-3181 4/08(금)오후7시 성당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동진 스테파노 793-6157 4/08(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장원철 안드레아 562-472-4727 4/09(토) 오전11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4/12(화)오전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회장단 회의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 회의	1시
-------	----

바수어진 뼈들이 춤추게 하소서!

영화 <케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플라잉 더치맨 (The Flying Dutchman)’은 배의 성능과 항해술을 과신해 폭풍우에도 항해를 강행했다가 실종된 네덜란드 선박의 이름입니다. 그 네덜란드 선박의 오만 때문에 이 배는 저주를 받아 영원히 바다를 떠돌게 되었고, 선원들은 죽지 못한 채 3백년 동안 좀비로 살아갑니다. 바로 전설의 유령선입니다.

이 소재를 오페라로 만든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에는 이 배의 좀비 선원들이 7년 만에 한 번 물에 내려와 합창을 하며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이미 대학생이었던 오빠가 이 오페라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새하얗게 빛나는 해골로 등장한 유령선 선원들의 뼈격거리는 춤은 기괴하고 무서운 장면인데도 묘하게 우스웠습니다. 오빠와 저는 그 해골 인간들의 춤을 보면서 “바수어진 뼈들이 춤추게 하소서!” 하며 키득거렸습니다. 그 뒤로 가족들이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기일에 연도를 바칠 때마다 저희 둘은 이 대목이 나오면 웃음을 참느라 기를 써야 했습니다. 오페라 영화 속 ‘바수어진 뼈들이 춤추는’ 장면이 매년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부활 제2주일 전날,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잠자리에 누운 채로 목주기도를 바치다 잠시 잠든 중에 돌아가신 듯 합니다. 손에 목주를 쥔 채 지극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선종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바치셨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빈소는 꽃 향기와 연도의 노랫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결혼 전에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던 엄마는 막내딸인 저와 함께 화음을 맞춰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꽃밭에서는~ 봉숭아, 맨드라미, 분꽃, 나팔꽃 핀~” 어릴 때부터 부르던 이 노래를 제가 어른이 된 뒤에도 틈만 나면 부르자고 하셨는데, 제가 공부하러 외국에 가고 결혼하고 일 때문에 바빠지면서 차츰 엄마와 함께 노래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통화 중에 노래하자고 하면 얼른 엄마의 소프라노 멜로디에 알토 화음을 넣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돌려주시어 바수어진 뼈들이 춤추게 하소서.” (시편 51,10) 연도에 들어 있는 이 구절은 다윗 왕이 밋세바와 정을 통한 다음 예언자 나탄이 찾아왔을 때 지은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은)저를 꺾어 벌하셨지만 제가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것처럼 용감하고 지혜롭고 예술적인 인간이었던 다윗 왕이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지 못해 이런 죄를 짓다니요. 누구라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만, 다윗

의 절실한 참회는 연도를 바치는 우리의 마음에 진하게 스며들며 주님의 용서를 희망하게 해 줍니다.

이번에는 연도 중에 이 대목에서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엄마가 천국의 꽃밭에서 저 대신 천사들과 함께 화음 맞춰 노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 이용숙 안젤라 / 음악평론가

[교리상식]

가톨릭 신자들도 제사를 지낼 수 있나요?

부모와 조상을 섬기는 일은 가톨릭 신자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주나 지방을 모시지 않습니다. 죽은 이의 묘 앞에서, 혹은 죽은 이의 사진이나 이름이 적힌 상 앞에 절을 하거나 그들을 공경하는 표시로 제사 음식을 차립니다. 조상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 「PD 하느님, DJ 예수님 / 바오로말

[길을 찾는 그대에게]

어떤 이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 다 누리다가 하느님 품으로 가고, 어떤 이는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느님의 공평하심을 믿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 불공평과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실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비아냥이 그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불평등이야 인간들이 저지른 일로 치더라도, 한 개인의 삶 전체가 태생적으로 불공평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힘이 듭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모여 있어, 잘 생긴 데다가 똑똑하고 건강하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반면, 어느 누구에게는 질병, 장애, 가난 등 좋지 않은 것들 전부가 모여 있는 삶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공평하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진짜 신앙 또한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절대자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는 분, 어떤 이에게는 한없이 복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참담한 결과만 허락하시는 하느님은 절대자도 전능하신 분도 아닌, 그저 내가 만든, 내 생각 속의 하느님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계 너머에 계시는 분이 진짜 하느님입니다. 그 초월의 하느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을 훌쩍 뛰어넘는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된 무덤 경비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저 예수라는 사기꾼이 살아 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라며 따집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오 27,62-66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자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요셉은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자신이 소유한 새 무덤에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된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오 28,1-8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여인에게 나타나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시며 두려워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비병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광경을 지켜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여자들이 떠나간 뒤에 혼비백산한 경비병 몇 명은 성안으로 들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수석 사제들에게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의논 끝에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단단히 일러두며 어떤 부탁을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오 28,9-15

무덤 경비병들은 돈과 권력의 힘에 눌려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들이 거짓된 증언을 하는 범죄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로마 경비병들의 이야기는 초대 공동체 안에서 다른 많은 부활 이야기와 함께 공공연하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 생각 이상으로 항상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그러니 셋째 날까지 ()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를 훔쳐 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마태 27,64)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들에게 ()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를 보게 될 것이다. (마태 28,10)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성인 말씀

아무것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소망을 하늘에서 가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바람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의 바람과 각 사람의 바람은 또한 하느님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 성 안셀모-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자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J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매리엄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 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 Bl. #1110 LA (에퀴터블)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천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앞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켈마-

한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OB96589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직경력

☎310-627-7204 서혜정 마르타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